

< 새 포도주를 담은 새 가족부대 >

마태복음 9:16,17 / 새찬송가 19 (통일 44) 찬송하는 소리 있어

1. 주님은 항상 새 포도주를 예비하고 계시므로 우리도 새 가족부대를 준비 합시다
주님이 새해를 주셨다는 것은 새 포도주를 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. 따라서 우리도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족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(욥2:19).

하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는 영적인 선물입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‘영적인 마음’ 이 ‘새 가족부대’ 입니다(고전2:11-15). 이는 영적세계를 늘 의식하고 그 세계에서 이뤄진 것이 이 세상에서 또 우리 육신과 삶에도 다 이루어짐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.

2. 새해에는 영적인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살아갑시다

아브라함은 영적인 판단을 했을 때는 복을 받았으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때는 큰 난관에 처했습니다. 야곱 또한 영적인 판단을 했을 때야 그 이름이 야곱(사기꾼)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.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누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(고전2:9,10).

또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더욱 영적인 사람입니다(히 13:1,2).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나무 숲 근처에서 나타난 세 천사들을 대접하여 아들 이삭을 얻을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(창18:1-5). 또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온 두 천사를 대접하여 멸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(창19:1-5). 마노아도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삼손을 낳을 것이라고 계시하는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(삿13:1-5), (삿13:16-20).

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조국 이스라엘의 장래를 위해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계시를 준 것은 천사장 가브리엘이었습니다. 그는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 응답을 받아서 하늘에서 내려왔으나 공중 권세를 잡고 페르시아 제국을 지키는 악령들의 수장이 방해하여 오지 못했으나 미카엘 천사장이 나타나 도와 주었다고 했습니다(단10:12-14). 또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계시를 준 것도 가브리엘 천사장이었습니다(눅1:25-31). 옥에 갇힌 베드로도 천사가 구출해 주었습니다(행12장),(행12:11).

이처럼 천사들의 도움을 의식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(히 1:14).

3.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

우리가 준비할 새 가족부대는 새 마음인데 이 마음은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는 마음입니다(롬12:1,2).

지금 세대는 오직 이 땅에서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준비할 새 마음 즉 새 가족부대는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대한민국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고자 애쓰는 마음입니다.

또 그 뜻을 성령을 통해 깨닫고 나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.

우리가 주님께 그 무엇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마음입니다. 내 생각을 정해놓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

이런 마음들이 주님이 주신 참된 믿음이요 방향전환이요 우리가 준비할 새 가족부대입니다. 에스겔은 주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(겔36:26,27). 굳은 마음은 내 생각을 주님께 강요하는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은 주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드리도록 내 마음을 열어 놓고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입니다.

새해에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갈아갑시다!

<적용&실천>

나는 내가 원하는 바만 기도제목으로 내어놓으며 주님께서 내 뜻대로 행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? 그 이전에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계획보다 좋으신 주님의 뜻이 이뤄지기를 간구합시다.